

美 신정부 정책 등 불확실성 대응... 韓 성장동력 높인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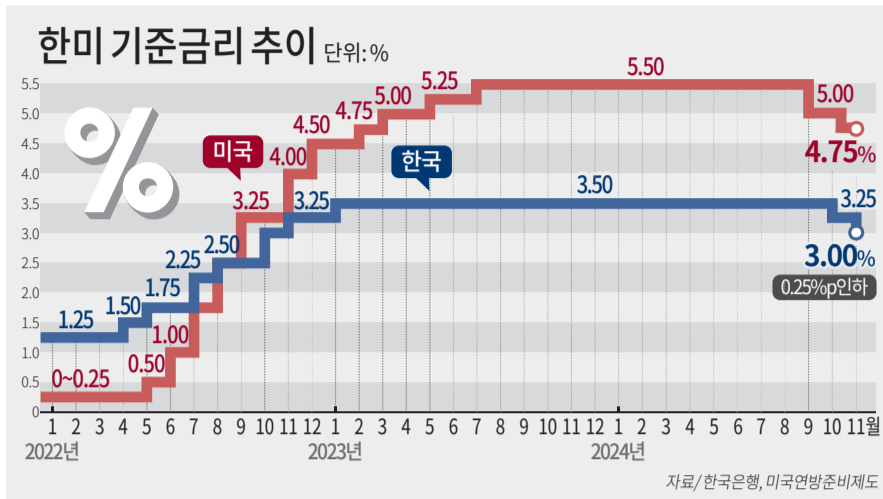
트럼프 2기 추가관세 등 영향
“예상보다 경제침체 가능성 커져
원·달러 환율은 대응 여력 충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배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올렸던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면서도 “예상보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통위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연 3.25%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심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깜짝 금리인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 “환율 충분히 조정 가능”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

는 것과 관련해서 이전과 외환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뀐 만큼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대선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커져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점차 완

화되고 있는 만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56억8000만달러로 세계 9위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데다,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은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화의 절하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속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달러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의 경쟁관계가 있는 엔화, 위안화 하고도 경쟁관계가 있다”며 “두 화폐가 가장 절하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효과, 장기적으로 봐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

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에 한 1~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금리는 이미 0.5%p 낮춘 효과가 반영된 이후 금리가 상승해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조절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부분은 내년 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등 금융안정이 이어지면 은행들이 올렸던 가산금리 등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한 달 한 달 평가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롯데그룹, 최고경영자 21명 교체... ‘오너 3세’ 신유열 부사장 승진

역대 최대규모 인적 쇄신 단행
임원 대폭 축소... 조직 슬림화
신 부사장, 바이오 등 신사업 주력

롯데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변화를 주는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부사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고, 그룹 컨트롤 타워 강화를 통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의 ‘위기설’까지 초래한 롯데 화학군에서는 총 13명의 CEO 가운데 10명이 교체됐다.

롯데는 롯데지주 포함 3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임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13% 줄었으며, 최고경영자(CEO)도 21명이 교체되는 등 지금까지의 롯데 임원 인사 가운데 가장 변화가 크다는 평가다.

◆ 신유열 부사장, 그룹경영 본격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은 이번 인사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노준형
롯데지주 사장



이영준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

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유열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롯데스 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와 롯데파 이낸셜 대표를 역임하며 투자 및 재무 전문성을 쌓았으며 롯데지주 미래성장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에서 근무하며 그룹 내 미래사업 및 글로벌사업 부문을 주도했다.

롯데그룹은 신부사장이 신사업분야와 글로벌시장 개척을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CDMO 등 신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핵심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힘쓸 계획이다.

◆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혁신 드라이브

먼저 강력한 혁신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노준형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경영혁신실과 사업지원실을 통합한 조직을 이끌며 그룹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다.

화학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이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를 맡는다.

아울러 롯데 화학군 임원 가운데 약 30%가 퇴임한다. 특히 60대 이상 임원의 80%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는 롯데 화학군의 대대적인 쇄신을 위한 인사 조치다.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정호석 부사장은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호텔롯데는 법인내 3개 사업부(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롯데월드) 대표이사가 전부 물러나는 초강수를 두며 본격적인 경영체질 개선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롯데지주 HR혁신실 기업문화팀장 김동하 상무가 전무로 승진해 신임 대표이사로, 롯데월드는 권오상 신규사업본부장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롯데지주 이동우 부회장을 비롯해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이영구 부회장과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김상현 부회장 및 주요 식품·유통 계열사의 CEO는 유임된다.

◆ 70년대생 젊은 리더십 구축

롯데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임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조직 슬림화를

추진했으며, 젊은 인재 중심의 리더십 강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0년대생 CEO를 대거 내정해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젊은 리더십을 구축한다. 롯데 면세점 김동하 대표이사(70년생), 롯데 이노베이트 김경엽 대표이사(70년생), 롯데엔시 박경선 대표이사(70년생), LC Titan 장선표 대표이사(70년생),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황민재 대표이사(71년생), 롯데이네오스화학 성규철 대표이사(71년생), 한국에스티엘 윤우욱 대표이사(71년생), 에프알엘코리아 최우재 대표이사(74년생), 아사히 최준영 대표이사(73년생), 롯데중앙연구소 윤원주 연구소장(74년생), 롯데벤처스 김승욱 대표이사(74년생),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김해철 대표이사(74년생) 등 12명이 신임 CEO로서 전진 배치된다.

한편, 롯데그룹은 기존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체제를 수시 임원 인사 체제로 전환한다. /신원선·안재선기자 tree6834@

월평균 가계소득 525만5000원... 전년 대비 4.4% ↑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사업소득 98만7000원... 0.3% 증가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었으나 사업소득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 미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2%대) 역시 늘었지만 실질 사업소득(-1%대)은 뒷걸음질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전국 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4.4% 늘어났다.

소득은 5분기째 증가세를 보였다. 또 전 분위에서 2분기 연속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제한 실질소득 역시 2.3%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증가를 이끌었다.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른 데 힘입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3.3% 늘어난 33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98만7000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로 보면 사업소득은 1.7% 줄어들었다. 내수가 부진했던 탓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매판매가 줄었고 자영업자 가구는 감소했다”며 “이런 것들이 물가를 고려한 실질로 볼 때 마이너스로 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0년간 2.5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 1면 ‘여의도 12배 면적...’서 계속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 개

선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경우,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경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